

[신성우 심화 3회차(4강) HALF 모의고사 정답 및 문항 출처

	정답	문항 출처	분류
1	①	16년 모평 6월 17번	설명 / 도출 / 인과
2	③	16년 수능 국어 24번	논증적 독해 / 귀납
3	④	15년 모평 6월 22번	모순 / 함축 / 설명적 연관
4	②	22년 추리논증 20번	시제 / 지표사
5	⑤	22년 추리논증 37번	인과
6	④	22년 추리논증 22번	술어의 확장
7	②	22년 추리논증 32번	논리 퀴즈
8	③	22년 추리논증 34번	논리 퀴즈
9	①	22년 추리논증 36번	논증 구조도
10	④	22년 추리논증 15번	정보 도출 (논증)
11	④	22년 추리논증 16번	논증 분석
12	⑤	22년 추리논증 17번	논증 분석
13	①	22년 추리논증 18번	논증 분석
14	③	22년 추리논증 21번	논증 분석
15	④	22년 추리논증 23번	논증 분석
16	①	22년 추리논증 1번	강화 약화
17	②	22년 추리논증 28번	강화 약화
18	②	22년 추리논증 30번	강화 약화
19	①	11년 모평 6월 13번	타당성 / 건전성 / 개연성
20	①	11년 모평 6월 14번	타당성 / 건전성 / 개연성

[주요 강의 내용]

- 험펠의 설명 : 논증에 따른 도출을 기준으로 한 '설명'  
 켈먼의 설명 : 원인과 결과 개념을 기준으로 한 '설명'

선지 판단 :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바꾸어 만든 선지
- 귀납 : 귀납이 가정하는 법칙은 결국 '자연이 한결같다'  
 법칙과 초기조건으로 이해해 볼 것

개연성과 확률
- 모순 / 함축 / 그리고 설명적 연관

선지 판단 : 이중부정에 대한 이해
- 시제논리의 개념에 대한 이해 :  
 '오늘'이라는 표현은 이틀 연속 사용해서 같은 날을 가르킬 수 없다.

내용 이해: 언어적으로 다른 의미지만 (같은 대상을 가르켜) 같은 말이 될 수 있음  
 같은 대상을 가르킨다고 해서 항상 같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님

벤다이어그램적 정확한 표현의 필요성
- 벤다이어그램 표현 가능한가? 어렵다  
 왜? 양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호화의 방법으로서의 양상표현  
 (반사실문의 양상표현)

함의적 독해의 중요성 : '상관관계를 지운다'의 의미

문제의 풀이 : 마지막 문단  
 선지의 장치 : X의 다른 방식으로의 사용
- 취향 술어? 숨겨진 항의 문제

을의 논증 구조의 이해 : 갑이 맞다면 ~
- 7~8. 논리퀴즈
- 매우 어려운 논증 구조도

  - 한국 사회 전반에 묵가와 유가 이론이 적용된다.  
 묵가와 유가 이론을 사람과 로봇 관계에 적용한다면,
  - 다른 지문을 읽어야 풀 수 있는 경우 (함축 및 함의)
  - '~때 ~할 수 있다.'

10. ‘사실에 대한 무지가 도덕적 비난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도덕에 대한 무지라도 다를 리 없다.’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결과로 나온 행동은 칭찬받을 만하다.  
 (악한 성품의 경우에도 적용)  
 극단적 형태의 도덕적 무지는 악한 성품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11. 아 xor 알못, (관 -> 아관 xor 알못관)  
 그관 & 아 -> 불가  
 그관 & 알못 -> 불가  
 따라서 ~그관
12. A ‘존재가 아니라 결여’ (함의)  
 악이 결여라면 더함과 덜함을 말할 수 없다.  
 악은 더함과 덜함을 말할 수 있다.
- B 더 악함, 덜 악함을 말함은 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 때 표현에 주의)  
 결여를 내포하는 개념도 더함과 덜함을 말할 수 있다.  
 선을 더 많이 결여한 것은 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결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성질이 아니다.
13. 율의 논증  
 숨은 전제 :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수단은 정당하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보기 활용)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의 등수가 오른다.  
 다른 학생들의 등수가 오르면 그들은 기뻐한다.  
 나는 등수가 오르는 것이 기쁘지 않다.  
 따라서 공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한 행동은 정당하다.
- 보기 ㄷ : 전칭과 특칭에 대한 이해
14. 어떤 허구 작품들에서 사용되는 ‘나폴레옹’은 실존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다.  
 따라서 (1), (2) 중 하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2)의 견해에 문제점이 없는 이상 (1) 대신 (2)를 취해야 한다.  
 (2)의 견해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관이 잘못이다.)  
 선지 ㄱ: 견해의 확장  
 선지 ㄴ: 허구 작품(전쟁과 평화)에서 나폴레옹이 실존인물 지칭  
 선지 ㄷ: 거짓이어도 무관

15. 진위 값이 다르면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문장의 의미가 보존되지 않으면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어떤 언어에 속한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보존하는 다른 언어 문장으로의 올바른 번역은, 인용 부호 안의 표현 자체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의 이해
16. 주장 : 미래에 신경과학이 모든 행동의 원인을 뇌 안에서 찾아내게 되어도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관행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범죄 행동이 두뇌에 있는 원인에 의해 결정된 것이어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신경과학이 모든 행동의 원인을 뇌 안에서 찾아내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관행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그러나 오해  
 -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려면 ‘피고인에게 합리적 행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 (합리적 행위 능력이란 자신의 믿음에 입각해서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사람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신경과학이 보여 주지 않는 한, 그것은 책임에 관한 법의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숨은 전제 : 신경과학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한다.)  
 \* 강화, 약화의 판단기준은 동일하다.
17. A : VIS유무가 아닌 피해의 심각성이 무거운 형량 유도  
 (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VIS 제시)  
 B : VIS가 무거운 형량 유도  
 (관사나 배심원들이 VIS 피해 내용에 영향 및 피해자가 VIS를 통해 표출하는 감정으로부터 영향)
18. 강화 약화 판단의 플로우
19. 타당 / 건전 / 개연성
20. 남자의 추론은? 후건긍정방식 (개연성)  
 개연성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